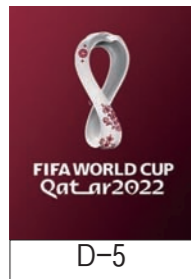


손흥민, 도하 입성... 태극전사 '하나된 완전체'

26명 중 가장 늦게 카타르 도착
훈련·경기 정상적 소화 미지수
벤투 "손, 매일 상황 분석해야
아직 선택 할 시간 남아 있어
일단 선수 회복이 가장 중요"



벤투호의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 뛰기 위해 내일 결전의 땅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다.

손흥민은 16일 오전 0시5분경(현지시간) 카타르에 입국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번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 태극전사 중 가장 늦게 카타르 땅을 밟았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마르세유(프랑스)와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경기 도중 안와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대표팀 주장이자 팀 내 최고 골잡이인 손흥민을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다.

손흥민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라도



손흥민이 9월19일 오후 오픈 트레이닝이 진행 중인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스

월드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 1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4-3 승)때 수술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수술한 왼쪽 눈 주위가 부어 있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소속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다만 손흥민이 카타르 입성 후 대표팀

훈련과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과 관련해서는 본인 그리고 구단과 지속 연락 중"이라며 "기다리면서 매일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다. 선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표팀 관계자도 "손흥민의 몸 상태에 대해선 추가로 들어올 정보가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합류로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이 모두 모여 완전체가 됐다. 하지만 손흥민이 곧바로 대표팀 훈련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벤투호는 월드컵 조별리그 H조에서 우루과이와 1차전(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10시), 가나와 2차전(28일 오후 10시), 포르투갈과 3차전(12월3일 오전 0시)을 치른다. 스키아데일리/뉴스스



'가왕' 조용필(72)이 9년 만에 신곡 2곡을 낸다.

YPC, 유니버설뮤직

'가왕' 조용필, 9년 만에 싱글로 신곡

18일 '로드 투 20-프렐류드 1' 공개... '찰나' 등 두곡

'가왕' 조용필(72)이 9년 만에 신곡 2곡을 낸다. 15일 소속사 YPC와 음원 유통사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조용필은 오는 18일 오후 6시 '로드 투 20-프렐류드 1(Road to 20-Prelude 1)'을 공개한다. 이번 신곡 발표는 2013년 전국을 들쭉이게 만들었던 정규 19집 '헬로(Hello)'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선공개곡 '바운스'는 중장년 가수의 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음원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조용필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신곡 음원 일부도 담긴 약 30초 분량의 영상엔 발매일과 함께 '찰나 세레게티 처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번 싱글에 실리는 두 곡의 제목이다.

'찰나'는 시간의 흐름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곡 '세레게티'에 대해 일각에 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조용필은 오는 18일 오후 6시 '로드 투 20-프렐류드 1'을 공개한다. 이번 신곡 발표는 2013년 전국을 들쭉이게 만들었던 정규 19집 '헬로(Hello)'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선공개곡 '바운스'는 중장년 가수의 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음원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조용필은 1998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탄자니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아내 고(故) 안진현 씨와 함께 현지를 방문해 킬리만자로와 세레게티 국립공원 등을 돌아보기도 했다.

KLPGA 2년 연속 상금왕 박민지, 안방서 뛰어도 세계 12위

순위 더 높은 한국 선수, 고진영·전인지·김효주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2년 연속 6승을 달성하며 국내 무대를 평정한 박민지(24·NH투자증권)가 12위까지 세계 랭킹을 끌어올렸다. 박민지는 15일(한국시간) 발표된 톨레스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3.42점으로 6계단 오른 12위에 올랐다. 박민지는 지난 13일 끝난 KLPGA 최종전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려 통산 16승을 거뒀다. 16승은 현역 KLPGA 선수 중 최다승이다.

또 박민지는 2년 연속 6승을 달성하며 2년 연속 다승왕에 올랐다. 2006~2008년 3년 연속 다승왕을 한 신지에 이후 연속 다승왕이 나온 것은 14년 만이다. 박민지가 프로 데뷔 후 탄 생애 총상금 역시 장하나에 이어 역대 2번째로 50억 원을 넘겼다. 박민지가 이처럼 승승장구한 결과가 세계 순위에도 반영됐다. 박민지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에 진출하지 않고 도 세계 10위권을 위협하고 있다. 박민지는 내년 시즌에도 KLPGA 투어에서 뛰



13일 강원 춘천 라비에벨CC에서 열린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2 파이널라운드, 우승을 차지한 박민지가 트로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스

후 내후년께 LPGA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지보다 순위가 높은 한국 선수는 고진영(27)과 전인지(28)·김효주(27)뿐이다.

순목 부상 후 침체에 빠진 고진영은 세계 1위에서 내려와 이번엔 4위까지 치렀다. 고진영은 최근 컷 탈락과 기권을 거듭하며 부진에 빠져있다.

오현경 "父 일찍 여의고 母 홀로 삼남매 키워"

배우 오현경이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에서 가족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오현경은 15일 오후 8시30분 방영되는 KBS2 TV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에서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었던 사연을 털어놓는다. 오현경은 홀로 세 남매를 키운 엄마에 대해 "엄마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다"며 존경스러워 한다. 이야기를 들은 멤버들은 공감을 하며 눈물



배우 오현경이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에서 가족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뉴스스

로 위로를 전한다. 오현경은 지난 2002년 계몽사 흥송회 회장과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2006년 이혼했다.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쏘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나의 건강 터닝포인트 리턴업

Returnup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1회 분량: 1캡슐(500mg)

총 60회 분량

1회분량 당 함량: 열량 0 kcal, 탄수화물 0g(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포도당 0g(0%), 총 지방산 89.6mg(100%), 로르산(lauric acid) Bz 1.4mg(100%), 비타민Bz 1.5mg(100%), 비타민Bz 2.4mg(100%), 아연 4.95mg(58%), 셀레늄 30µg(55%)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1+)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